

영업정지·고발조치 당해도 위법사항 개선않고 또…

나주 폐기물처리업체 '배짱 영업'

업체 버티기 일관… 나주시 해결책 찾기 골머리

나주시 노안면에 있는 특정 폐기물 처리업체가 수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법사항을 전혀 개선하지 않은 채 배짱영업으로 일관, 막션이다.

이는 현행 '폐기물 관리법'을 악용, 단속자체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 때문에 나주시가 별도의 해결책 찾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30일 나주시에 따르면 노안면 학산리에 있는 A폐기물처리업체의 경우 지난 1997년 6월 전남도로부터 허가를 받아 폐목재 등을 텁텁으로 만들어 처리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폐기물을 과다반입'하고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는 등의 관련 법규를 위반, 영업정지 및 검찰에 고발조치 등의 처분을 각각 4차례나 받았는데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해당업체의 약적장에 가로 70m, 세로 40m 면적에 수십만t의 폐목재 등이 10m 가량의 높이로 쌓여 있는 가운데 최근 이곳에서 화재까지 연이어 발생, 인근 주민들이 유독가스 등의 피해를 호소했다.

해당업체가 이 같은 단속에도 불구

하고 위법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채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현행 폐기물 관리법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며 이를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업체는 최근 나주시로부터 4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검찰에 고발조치 당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월에도 1000만원과 300만원 등 2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았었다.

이에 앞서 2010년도에는 영업정지 1개월 및 검찰고발 조치, 2009년도 영업정지 4개월 및 검찰 고발조치, 2008년 영업정지 3개월 및 검찰고발 조치, 2006년 사용증지 명령을 받았었는데

도 전혀 위법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폐기물 관리법상 3회 이상 적발시 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행정처분 기간을 1년으로 산정하다 보니 이전 적발된 건수는 소멸돼 이 같이 반복적인 조치만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해당업체가 위법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채 버티기로 일관하자 영업정지 기간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등의 불법행위 증거를 확보, 허가를 취소한다는 계획으로 해당업체의 주 통행로에 CCTV 설치를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장흥 천관산에서 열리고 있는 '2011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를 찾은 사람들이 채혈없이 1분이내에 종종·동맥경화 등 7기지 질환을 진단하는 모세혈관현미경검사를 받고 있다. 지난 28일 개막이후 3일 동안 15만명이 몰린 박람회는 다음달 6일까지 무료로 진진과 체험, 명의·명사 강연 등 다양한 행사속에 진행된다.

<전남도 제공>



장성 곶감이어 사과 명품 브랜드 추진

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 특허 등록 박차

장성군은 대표 특산품인 '장성사과'의 명성을 걸맞은 명품화를 위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추진, 특허등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장성군에 따르면 올해 초 특허청 전남지식센터와 함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장성사과를 대상으로 선정, 재배농가 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등록을 추진해

왔다.

올해 연구용역 보고회를 비롯해 '장성사과 주식회사' 공식 출범 등 절차가 사과농가들의 호응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장성사과'에 대한 기초 조사,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본질적 연관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에 있다. 군은 11월초에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를 마치면 특허청에 '장성사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출원과 심사 및 이의신청 등을 거쳐 최종 등록이 완료된다.

장성군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장성곶감'에 이어 2번째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장성사과의 전통적 브랜드로 입지를 굳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단감 등 경쟁력있는 특산품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지역은 전남 사과생산량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내에서 유일하게 '탑프루트 단지'가 조성돼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100년에 나올까 말까한 '6각 호도' 보셨나요?

장흥 귀족호도 박물관 내달 4일 개관

장흥군 귀족호도 박물관은 11월 4일 열리는 '제9회 귀족호도(호두)의 날' 행사에서 세계 최초로 '희귀 유타 귀족호두'(사진)를 선보인다. 이번에 생산된 유타 귀족호두는 여섯 조각으로 갈라지는 것으로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극히 드문 명품이다. 표준밀은 '호두'지만 장흥에서는 한자에서 유래한 '귀족'

'호도'를 상표등록해 사용하고 있다. 귀족호도 박물관은 이 작품에 장흥군의 번영을 기원하고 그 가치를 길이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장흥의 '흥화(興華)'자와 '빛날(華)'자를 사용해 '흥화(興華)'라는 이름을 붙여 영구보존할 예정이다.

장흥 지역에는 수령 300년이 넘은 8그루를 포함해 전체 500여 그루

의 호두나무 가운데 100여 그루에서 '장흥 귀족호도'를 수확하고 있다. 귀족호두는 쪼愆을 때 두 조각으로 갈라지는 양각(2각)이 기본이며 세 조각이나 네 조각으로 갈라지는 삼각 또는 사각 호두도 한 나무에서 1~2~3~4개에 나오지 않아 수백만원에 팔리는 등 희귀품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김재원 귀족호도 박물관장은 "이번 '귀족호도의 날'을 맞아 유타

두 명품 지정식을 하고 올해 생산한 호두 가운데 최우수 양각, 삼각, 사각 각 한 벌씩을 선별해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흥군은 지난 2003년부터 호두 두 알을 뜯는 '11월'과 사랑하는 발음에서 '4일'을 따서 11월 4일을 '귀족호도의 날'로 정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루의 호두나무 가운데 100여 그루에서 '장흥 귀족호도'를 수확하고 있다. 귀족호두는 쪼愆을 때 두 조각으로 갈라지는 양각(2각)이 기본이며 세 조각이나 네 조각으로 갈라지는 삼각 또는 사각 호두도 한 나무에서 1~2~3~4개에 나오지 않아 수백만원에 팔리는 등 희귀품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한편 장흥군은 지난 2003년부터

호두 두 알을 뜯는 '11월'과 사랑하는 발음에서 '4일'을 따서 11월 4일을 '귀족호도의 날'로 정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두 명품 지정식을 하고 올해 생산한 호두 가운데 최우수 양각, 삼각, 사각 각 한 벌씩을 선별해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흥군은 지난 2003년부터 호두 두 알을 뜯는 '11월'과 사랑하는 발음에서 '4일'을 따서 11월 4일을 '귀족호도의 날'로 정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나주혁신도시 전문

솔로몬은
전문가의 눈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합니다.



상업용지·주차장용지·아주자택지·힐자택지
※ 11.5(토) 혁신도시 인접지역인 산포면
전관리소 부근으로 이전합니다.

전국 혁신도시 투자전문

솔로몬공인중개사 사무소

보물창고 010-3153-4242
010-2609-5888

위치 : 금천면 사무소 맞은편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매매

▶ 자연녹지(율류청고, 공장적합)

광산구비아동, 비아 IC에서 5분거리, 11,463㎡(3,468평) 3.3㎡당 70만원

▶ 계획관리지역(물류창고, 공장 허용도 가능)

광산구 송학동, 나주 IC에서 3분거리, 21,914㎡(6,630평) 매매가 22억

▶ 계획관리지역(전일주택, 연수공장 창고, 투자, 기타)

광산구 양동, 용성지동자 학연인근, 28,845㎡(8,726평) 대지 약 400평, 건축물 있음, 매매가 13억원

▶ 준주거지역(병원, 시유, 임대용상가건물신축부지적합)

화정동, 광교간도로변, 지하철역부근 대지 1,520㎡(460평) 3.3㎡당 300만원

▶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 풍암동, 지상층건물, 보증금1억2천만원 월820만원 매매가 13억5천만원

▶ 용봉동 지상4층 보증금2억2천 월810만원 매매가 13억

▶ 수익성 좋은 다가구 주택

▶ 회정동, 4층건물, 월임10실, 투룸3실, 쓰리룸2실, 4층 본인 거주 보증금9천 월400만원 매매가 5억8천만원

▶ 공장 건물 매매

▶ 광교 우신동, 광주공항 인근 대지 2,975㎡(900평) 건평 594.5㎡(180평) 매매가 8억

▶ <금구>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토지

▶ 본 광고물은 전 속 계약 된 물건임 ■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68949.co.kr

나라공인중개사

펜션텔 매도

전북순창군 북송면 대방리 펜션텔 2007년 준공

• 대지 : 1093㎡, 이동 : 1337㎡

• 케모기밀 238평, 케모기밀 10평방형 17개동 권리인 12동, 독채형 6실 주거장면적 수유면적 수밀집기밀원적합 예우대지자금계좌있음

• 매매가 : 13억(국지당3억) 6년마다 1억씩

• 모델 매도

전라남도 진도군 무정면 향기리 2010년 11월 11일

• 대지 : 1038㎡, 건물 : 1038㎡

• 지상 1층/상층 4층, 지하 1층, 총 3층, 총 109평, 지상 1층, 지하 1층, 지상 1층, 지하 1층

• 매매가 : 1억5천만원

• 대지 : 130m²(94.847평) 보증금5억5천만원

• 실투자금 : 11억7천만원

• 모델 매도

전라남도 진도군 무정면 향기리 2010년 11월 11일

• 대지 : 1038㎡, 건물 : 1038㎡

• 지상 1층/상층 4층, 지하 1층, 총 3층, 총 109평, 지상 1층, 지하 1층

• 매매가 : 1억5천만원

• 대지 : 130m²(94.847평) 보증금5억5천만원

• 실투자금 : 11억7천만원

• 모델 매도

전라남도 진도군 무정면 향기리 2010년 11월 11일

• 대지 : 1038㎡, 건물 : 1038㎡

• 지상 1층/상층 4층, 지하 1층, 총 3층, 총 109평, 지상 1층, 지하 1층

• 매매가 : 1억5천만원

• 대지 : 130m²(94.847평) 보증금5억5천만원

• 실투자금 : 11억7천만원

• 모델 매도

전라남도 진도군 무정면 향기리 2010년 11월 11일

• 대지 : 1038㎡, 건물 : 10